



Today's 비문학

독해 포인트 : 논지 전개 구조를 통한 추론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①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②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 ③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 ④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 1]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① 현대 물리학의 계보
- ②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
- ③ 양자 역학의 운동량 측정
- ④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
- ⑤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의 만남

[문제 2] ㉠, ㉡, ㉢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2)

- ① ㉢은 ㉠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② ㉢은 ㉡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③ ㉢은 ㉠이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④ ㉢은 ㉡가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⑤ ㉢은 ㉠과 ㉡가 동시에 맞는 경우에만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 3] <보기 1>의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3)

<보 기 1>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뜨겁거나 차갑고, '딩' 소리나 '댕' 소리가 난다. 구슬의 온도와 소리라는 두 물리적 속성은 위 글에서 소개된 양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고 하자.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

<보 기 2>

	A	B
ㄱ	딩	딩
ㄴ	딩	댕
ㄷ	댕	딩
ㄹ	댕	댕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4]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은 고전 역학의 가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 ② 물리학자들은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③ 양자 역학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예측과 인과적 설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
- ④ 양자 현상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니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 ⑤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는 현상과 지구 입자와 금성 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문제 5] ㉠을 '금성(金星)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셋별'처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 잘못된 것은? 5)

- ① 유성(流星)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 별뚥별
- ② 행성(行星)은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 잔별
- ③ 혜성(彗星)은 긴 꼬리를 끌면서 돈다. → 꼬리별
- ④ 항성(恒星)은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불박이별
- ⑤ 북극성(北極星)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된다. → 길잡이별

Today's 비문학 해설

오래전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출제 당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지문과 문제였다. 지금까지도 여러 비문학 교재에서 예시 문제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한 번쯤은 거들떠 볼만한 지문이기도 하다.

지문은 ‘양자역학’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특히 문제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면 답을 찾는 것이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해설을 참고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해’에 바탕을 둔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문을 통해, 시험장에서 만약 지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문의 논지 전개 구조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 역학의 가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문단은 고전역학의 두 가지 기본 가정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 문단은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에 비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가능하지만 불가사의(=이해되기 어렵다)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비교, 대조의 방식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자.

고전역학	양자역학
자연스러움	불가사의

위의 표를 만들어 놓고 나니,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비교와 대조를 굳이 표까지 만들어 가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하는 후회가 남는다..... 그러나.... 이유가 있으니 만들었을 거라고 선생을 믿어 주기 바란다.

비교와 대조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문제에서 물어볼지 그렇지 않을지는 나중의 문제이다. 지금 독해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단순하고 간단한 비교, 대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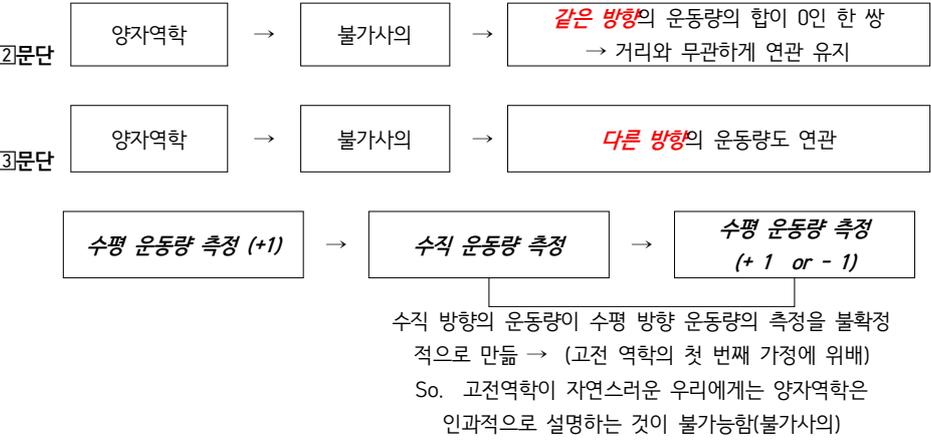
가끔, 문단에서 예시가 나오면 어차피 앞 문장의 부연일 뿐이라고 읽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독해를 실패하는 지름길은 읽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나누면서 읽는 거다. 절대로 주어진 텍스트의 일부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 문단의 예시는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답변할 수 있을까? 그렇다 양자역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불가사의’함에 대한 예시이다.



③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③ 문단도 ② 문단과 같이 '양자 역학'의 불가사의함을 또 다른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② 문단에서는 같은 방향의 운동량의 합이 0인 경우에 연관됨을 예를 들어 설명했고, ③ 문단은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④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양자 역학의 한계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양자 역학을 자연에 적용할 때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양자 현상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자 역학은 미래에 더 나은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도 어떤 형태로든 설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④ 문단은 양자역학이 미시세계에서 존재함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위의 문단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부연해서 양자역학은 양자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인과적 설명이 어렵다는 한계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한계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두 가지 반응도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문은 크게 어렵지 않고, 최근 수능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난이도의 지문이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 보자.

[문제 1]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물리학의 계보
- ②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
- ③ 양자 역학의 운동량 측정
- ④ 고전 역학의 두 가지 가정
- ⑤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의 만남

1번 문제의 정답은 ②번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겠다.

발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글의 제목'이다. 같은 발문으로 '표제', 혹은 '주제'를 묻는 문제가 있다. '제목, 표제, 주제'는 글의 내용과 연관되는 것이어야함은 물론이고 답을 선택한 후 반드시 자신이 고른 답이 '전체를 포괄'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④번 선지의 경우 글 내용과는 일치하지만 ②번과 비교했을 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중의 일부분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제나 제목이 될 수는 없다. 기억하자! **전체 포괄**.

[문제 2] ㉠, ㉡, ㉢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는 ㉠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② ㉢는 ㉡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③ ㉢는 ㉠이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④ ㉢는 ㉡가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⑤ ㉢는 ㉠과 ㉡가 동시에 맞는 경우에만 당연한 결과이다.

㉠ 문단 :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

- ㉡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 ㉢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

㉢ 문단 :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 ㉠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고전역학의 기본 가정은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이 다른 측정 대상의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와 했는데 ㉢에서는 수직 방향의 측정이 다른 대상(수평 운동량)을 변화 시켰으므로 ㉡와 ㉢는 서로 배척되는 진술이다. 그러므로 답은 ③번으로 보아야 한다.

지문을 간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답은 금방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문학은 지문확인 !!!

[문제 3] <보기 1>의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1>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뜨겁거나 차갑고, '딩' 소리나 '댕' 소리가 난다. 구슬의 온도와 소리라는 두 물리적 속성은 위 글에서 소개된 양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고 하자.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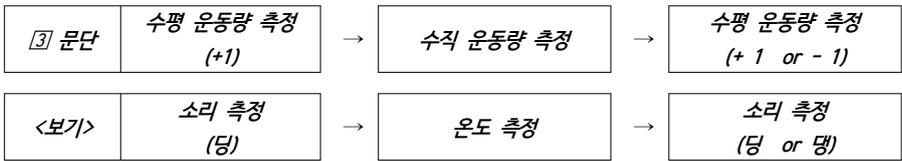
<보 기 2>		
	A	B
ㄱ	딩	딩
ㄴ	딩	댕
ㄷ	댕	딩
ㄹ	댕	댕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드디어 하이라이트 문제가 나왔다. 사실 이 지문은 이 문제를 풀기위한 지문일지도 모르겠다.
 <보기>는 지문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는 연습과 노력의 문제다.
 <보기>에서는 양자적 특징을 가지는 두 속성으로 '온도와 소리'를 제시했고 상호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하자. 이해하자는 말이 아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양자 역학의 두 변수를 언급한 지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 ③ 문단에서 확인했다.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물음은 ③ 문단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보기>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③ 문단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구조가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는가?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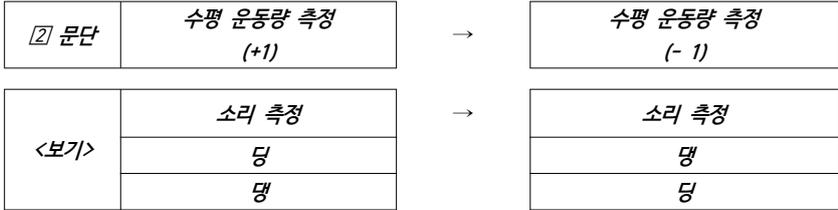
그러므로 (A)에 들어갈 소리는 '딩' 혹은 '땡'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기>의 (B) 부분을 검토해 보자.
 역시 이 부분도 B와 지문의 어떤 부분을 연결 시킬 것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보기>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A)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B) 소리가 날 것이다."

② 문단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결국 <보기>의 B 부분은 두드렸을 때 (= 같은 방향 운동량) 어떤 연관 관계 인지를 묻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명확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배경지식이 충분히 있고, 추론력과 사고력이 충분한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방식보다 더 지식으로 접근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능에서 만나는 모든 비문학 지문이 나의 배경지식의 범위 내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해가

어려울 때 지문의 구조를 가지고 <보기>의 문제를 풀어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예를 하나 공부했다.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의 답은 ③번이다.

[문제 4]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은 고전 역학의 가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 ② 물리학자들은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③ 양자 역학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예측과 인과적 설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
- ④ 양자 현상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니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 ⑤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는 현상과 지구 입자와 금성 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①번 선지는 ㉠ 문단에서 제시한 고전역학의 특징인 ‘자연스러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번 선지는 ㉣ 문단에서 “양자역학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하면 잘못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번 선지 역시 ㉣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과적으로 설명해주는 못한다고 진술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번 선지 역시 ㉣ 문단에 제시된 ‘아스펙의 실험’에서 확인가능하다.
 ⑤번 선지는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는 현상 = 고전역학”, “지구의 입자와 금성의 입자가 연관 = 양자역학”의 세계이므로 두 현상은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문제 5] ㉠을 ‘금성(金星)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새벽’처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 잘못된 것은?

- ① 유성(流星)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 별뿔별
- ② 행성(行星)은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 잔별
- ③ 혜성(彗星)은 긴 꼬리를 끌면서 돈다. → 꼬리별
- ④ 항성(恒星)은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불박이별
- ⑤ 북극성(北極星)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된다. → 길잡이별

5번 문제는 간단히 해설해 보도록 하겠다.
 “금성” (한자어) =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 = 새벽(고유어 / 새벽별)의 이다.
 ①, ③, ④, ⑤번은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유사한 고유어와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②번은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별”을 “잔별”이라고 했는데 “잔별”은 “작은별”이라는 의미이므로 ‘행성’이라는 한자어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볼 수 없다.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 1) ②
- 2) ③
- 3) ③
- 4) ②
- 5) ②